일상회복 후 첫 연등회…"전법의 길 진력" 다짐

〈1면에 이어〉

"인류를 구원하신 부처님같이 진리의 등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러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행렬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오후 7시부터는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행렬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 처음 열린 이번 연등회에는 5만여 대중이 행렬에 참여하고, 10만 연등과 장엄등이 서울 밤하늘을 장엄해 이전 규모로 회복했음을 세계에 내보였다.

올해 선두 장엄등은 '불교사물등'이었다. 중생제도를 상징하는 '불교사물등'은 법고등, 범종등, 운판등, 목어등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서원이 담겼다.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새롭게 선보인 장엄등도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은 '평등공법등'을 새로 선보였으며, 화계사는 '세계일화등', 진각종이 '황룡등'을, 전국비구니회는 '샤카디타등'을, 태고종이 '거북법고등' '관세음보살등' '달위의 비천등' '연꽃과 아이들등' 등을 새로 제작해 행렬에 참여했다.

부인과 함께 연등행렬을 구경하러 온 이민호 씨(61)는 "그동안 매번 행렬 참가자로만 연등회를 즐겼는데 올해는 구경꾼의 시선으로 보고 싶어 거리에 나왔다"며 "직접 등을 들고 걸을 때는 내 주변만 볼 수 있었는데 전체적인 행렬을 보게 되니 훨씬 즐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등행렬을 구경하는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진우 스님.


연등회 어울림마당에서 진관사 연희단이 봉축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5월 21일에는 한국불교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 '전통문화마당'이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펼쳐졌다.

이날 문화마당은 '전통마당' '청춘마당' '국제마당' 'NGO마당' '나눔마당' 등 5개 주제에 따라 100여 개 부스가 마련,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오감만족 다양한 체험의 장으로 열렸다.

이색적인 체험으로 가득한 '전통마당'은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다. 고려 전통 금니 사불 체험을 한 김영미 씨(33)는 "전시회에서나 봤던 금니 사불을 직접 해보니 신기하다"면서 "앞으로 불교작품 전시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체험 소감을 밝혔다.

동국대 운동장 3만명 운집
NO마스크로 연등행렬 참여
전통문화마당 웃음꽃 '활짝'

청춘마당은 '참 삶을 위한 여정 출가' '대불련과 놀아볼련' '불교 외국어 서적 · 명상음악 전시판매' '소통하는 스님들이 전하는 즐거운 불법특강 통통통'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참신한 체험 행사와 청년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힐링 프로그램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국제마당은 세계일화를 콘셉트로 미얀마, 몰골, 일본, 대만, 태국, 네팔, 베트남 등 주요 불교국가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았다.

NGO마당에서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남북 화해를 위한 평화 서명 운동' '에코붓다 쓰레기제로운동' 등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을 홍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라운딩 도중 민추본 부스 앞에서 설명을 듣고 즉석에서 평화 서명 운동에 동참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사장 일면 스님이 직접 나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동참자에게 손 선풍기 등을 선물했다.

조계사 옆 우정총국 마당에서는 외국인 등만들기 대회가 열렸다. 오전 11시부터 216명의 외국인들이 등만들기에 참여, 한국만의 아름다운 연꽃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에서 온 수잔 씨는 "만들기 뿐 아니라 등의 기원과 정성의 의미, 한국인의 정서를 느낀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박재완 · 신성민 · 윤호섭 · 임은호 기자

金 · 銀 메달로 즐기는 연등회

조계종–한국조폐공사, 직경 40㎜ 기념메달 출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의 기념메달이 처음으로 제작된다.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는 1200년 역사의 대한민국 대표 축제 연등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조계종과 공동으로 기념메달을 기획했다. 기념메달은 금메달과 은메달 2종으로 출시하며, 각각 순도 99%에 중량 31.1g, 직경 40㎜다.〈사진〉 특히 은메달은 조폐공사 최초로 앞 · 뒤 양면을 채색해 연등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판매가격(부가세 포함)은 개당 금메달 396만원, 은메달 22만원이다.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조폐공사 쇼핑몰(www.koreamint.com) 등에서 선착순 예약 판매한다.

은메달 앞면에는 연꽃등을 분홍색으로 채색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를 새겼다. 배경에는 연꽃등에서 빛이 널리 퍼져나가는 모습을 파동 형태로 표현했다. 뒷면에는 스님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등 행렬을 묘사했다. 메달 속 성인 남성은 팔모등, 남자아이는 수박등, 여자아이는 연등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또한 연등회의 영문 'Yeon Deung Hoe'를 비롯해 'Lotus Lantern Festival' 'Au999(금메달)' 'Ag999(은메달)' 및 조폐공사 홀마크를 새겼다.

조폐공사 측은 "'연꽃등'을 줄여서 연등(蓮燈)이라 부르고, '불 밝히다'는 의미로 '밝힐 연(燃)' 자를 써서 연등(燃燈)이라고도 한다"며 "욕심과 집착으로 어두워진 마음에 지혜를 밝히는 의미를 담아 메달을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조계종과 함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연등회를 기념메달로 선보이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념메달을 통해 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향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경찰 불자들 "공정 · 호국경찰로 거듭나겠다"

경찰청 경승단 · 불교회, 5월 15일 봉축법회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경찰 불자들이 "불의에 맞서는 공정한 경찰, 국토를 지키는 호국경찰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경찰청 경승단 · 불교회는 5월 15일 경찰청 본청 대강당에서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경승단 총재)을 비롯해 경승실장 지현 스님(조계사 주지), 경승 선업 스님(조계종 포교부장)과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 윤희근 경찰청장, 김준영 경찰청 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승단 총재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임제 선사가 말한 '수처작주 입처개진'을 상기시키며, "자기 자리에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경찰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경찰 곁에는 국민이 있고, 국민의 곁에는 국민의 수호신인 경찰이 있다. 또한 부처님의 광명과 지혜의 등불이 함께 하고 있다"면서 "경찰 여러분 한분 한분의 보살행이 국민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경승실장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사바세계에 나투신 부처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가슴에 바로 새기고 나와 너로 시작하는 시방삼세의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수승한 가르침을 따라가겠다"고 서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사말에서 "자비와 상생을 향한 걸음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해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가 되자고 선언하신 진우 스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찰 또한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힘차게 응답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신뢰받는 경찰, 존중받는 경찰, 함께 함께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봉축법회서 함께 관불의식을 하는 모습.

이와 함께 경찰청 불자회원과 법회 참여 대중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날 것을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참여대중은 발원문에서 "경찰 제복의 자긍심을 잊지 말고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경찰, 불법과 불의에 맞서는 공정한 경찰, 국토를 지키는 호국경찰이 되도록 보살펴달라"고 기원했다.

한편, 법회에 앞서 진우 스님 등 주요 내빈들은 경찰청 로비에서 참수리 장엄 등 봉축 점등식을 개최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미국 전역서 부처님오신날 축하

5월 5일 백악관서…해외특별교구도 연합법회



미국 백악관을 비롯해 전역에서 부처님오신날(The Buddhist festival of Vesak) 행사가 열렸다.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치러진 것은 올해로 세 번째다. 5월 5일 열린 행사에는 스님 20여 명이 초대됐다. 미국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의 남편 더글라스 엠호프, 미국 국제불교회(IBAA) 이사장 왕모(Wangmo Dixey), 캄보디아, 태국,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대사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사진〉

대승 불교권 스님 3명, 테라바다 불교 스님 3명, 바즈라야나 불교 스님 2명이 각 지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한국은 조계종 미주 비구니승가회 회장이며 조지아주 붓다나라 템플 주지 선각 스님과 태고종 소속 미국인 혜도 스님 그리고 일본 조동종 대각 스님이 초대돼 점등과 축원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다.

앤토니 블린컨 미국 국무장관은 축하 메세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세계에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동참자들은 점등과 축원을 통해 전쟁과 고통 종식을 염원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인류에 희망을 전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미중서부지회도 연합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해외특별교구 미중서부지회는 5월 13일 LA달마사(주지 금선) 법당에서 조계종 소속 15개 사찰 합동 연합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법왕사 주지 현일 스님은 법어에서 전쟁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부처님 원력으로 따스한 세상, 밝은 사회가 이뤄지길 기원했다. 스님은 "한 손으로 하늘을, 한 손으로는 땅을 향한 부처님 탄신 모습처럼 부처님 자비가 사방으로 퍼져 탐욕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KOMSCO 한국조폐공사

부처님오신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기념메달





연등회 기념 금메달
판매가격 : 3,960,000원
순금(Au999) / 31.1g / ø40mm/ Proof

연등회 기념 은메달
판매가격 : 220,000원
순은(Ag999) / 31.1g / ø40mm/ Proof

| 디자인
앞면
연등회의 가장 대표적인 연꽃등을 메인테마로 하고 배경곡선으로 빛의 파장을 표현하였다.
뒷면
나이,성별,직업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등을 가지고 함께 행렬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 선착순 예약접수 〉 05.22(월) - 06.02(금), 12일간
※ 배송 : 교부 09.18(월)- 09.22(금)

온라인 판매
KOMSCO 한국조폐공사
POONGSAN 풍동양행
Hmall THE HYUNDAI.COM

협업 기관
연등회보존위원회 YeonDeungHoe Preservation Committee
대한불교조계종

제조 및 판매 주관
KOMSCO 한국조폐공사
www.koreamint.com

오롯 골드바 판매
구매처 : 공사 쇼핑몰 (www.koreamint.com)
문 의 : 02-710-5227